

농촌사랑 동행순창 '맞손'

순창군-대구은행, 도농교류 활성화·영호남 상생협력

순창군과 대구은행이 도농교류 활성화와 영호남 상생협력을 통한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순창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이해원 대구은행 부행장 등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양기관은 △직원 연수, 워크숍 추진 시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 △순창 투어 등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달빛동맹 강화로 영호남 상생협력 기반 마련 등 각 단체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아울러, 협약과 함께 대구은행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하고 고추장민속마을을 방문해 300만원 상당의 순창전통고추장도 구입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순창군을 응원하고 호남사람의 선제적 실천으로 순창사랑을 시작했다.

대구은행은 1967년 국내 최초 지방은행으로 출범한 이래 지역경제와 금융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3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예술, 장학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중으로 전북 영남망 거점 마련을 위한 전주지점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해원 부행장은 "대구은행과 치유와 힐링의 명소인 순창군이 상호 우호 증진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대구은행과의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으로 영호남 간의 실질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달빛동맹을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과 대구은행이 22일 도농교류 활성화와 영호남 상생협력을 통한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 도심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자체 재원 1억원 투입, 사업대상지 4동... 동당 최대 2500만원까지

남원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범죄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방치된 빈집에 대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남원시는 기존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과 더불어 올해 자체 재원 1억원을 투입,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사업대상지는 4동으로 동당 최대 2,500만원까지(자부담 5% 이상)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 신청 가능 대상은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 및 공가로, 현장 검토 후 수리를 통해 활용이 가능한 주택을

별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소유주는 지원받은 리모델링 비용을 통한 정비 후 주거 취약계층 및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들에게 무상으로 4년간 임대해야 하며, 이는 주거공간 또는 문화공간 형태(공방, 작업·전시공간, 마을책방 등)로 활용되어 지역문화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봉 건축물 관리팀장은 "새롭게 추진되는 도심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주거개선뿐만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들과 귀농 귀촌인의 정착 지원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

(사진=임실군청 제공)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 봄꽃잔치 인기 절정

전북특별자치도의 보물 관광지인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이 전국적인 관광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재개장한 이후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생태공원은 철쭉과 꽃잔디 등 봄꽃이 만개하면서 관광객이 급증, 현재까지 10만 8천여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등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관광객들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옥정호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며 420m의 옥정호 출렁다리를 건너면 4월의 붕어섬 생태공원은 푸릇푸릇한 초록빛 사이로 분홍빛, 붉은빛 붓으로 터치해 놓은 듯 7만여본의 꽃잔디, 철쭉들이 활짝 펼쳐져 있다.

벚꽃과 튜립, 수선화가 만개했던 붕어섬 생태공원은 4월중순이 지나면서 꽃잔디와 철쭉의 진분홍이 장관을 이루어 방문 관광객들은 진분홍의 꽃속을 거닐며 더해가는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붕어섬 생태공원은 5월에는 붕어섬의 작약꽃, 6월에는 수국 등이 활짝 피어 지속적인 사계절 꽃나들이를 즐길 수 있으며, 붕어섬의 수변경관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를 예정이다.

그리고, 아기가자기한 포토존이 꽃과 나무와 어울려 곳곳에 조성되어, 이들이 나온 관광객들이 사진찍기에 좋은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30~31일 개최된 벚꽃축제에는 2만여명의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겼고, 2024 옥정호 그라운드·메디오폰도 대회 까지 대성공을 이루는 등 출렁다리 성공을 토대로 한 옥정호 관광효과를 특별히 입증했다.

임실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붕어섬 생태공원에 아름다운 경관을 더해 줄 꽃과 나무들을 지속적으로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이 편히 쉬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남원경찰서와 아동 보호 협약 체결

아동범죄 예방 상호 협력

남원시가 23일, 아동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 마련을 위해 남원경찰서와 '아동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남원시는 아동 보호 구역 신청 접수, 지정 공고,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아동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남원경찰서는 지정된 아동 보호구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아동 보호인력(아동안전지킴이)을 활용

해 아동범죄 예방 및 아동의 안전확보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철수 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원경찰서는 남원시와 손잡고 아동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최경식 시장은 "아동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현충일 앞두고 충혼탑 일대 대대적 정비 나서

순창군이 다가오는 현충일을 앞두고 순창읍에 위치한 충혼탑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충혼탑은 2003년에 조성된 이래,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잡목이 우거지고 석축이 무너지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충혼탑 일대가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군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충혼탑과 그 광장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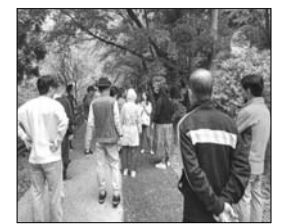
군은 현충일 이전인 5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7천여만원을 들여

조경석 40m를 새로 석축하고 충혼탑 광장을 사철나무와 함께 나라꽃인 무궁화 동산으로 조성해 단초 충혼탑 조성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충혼탑이 있는 제일고 동산을 재학 중인 학생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 그리고 매년 방문하는 스포츠 경기를 위해 방문하는 선수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보건소, 숲체험사업 '나눔 숲' 공모 선정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정신장애인의 정신과적 증상관리 및 악화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숲 체험 사업인 '나눔 숲'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숲체험의 숙박비와 식비,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정신장애인에게 제공하게 되었으며, 국립장성숲체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중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증정신장애인 15명에게 4월 23일과 24일(박 2일) 동안 진행되며 숲 체험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숲 오감 체험과 예코한지 전통장 만들기, 나무로 조형물 만들기 등으로 이루어져 일상에서의 숲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관내 보호수 노거수 정비사업 추진

임실군이 마을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보호수 및 노거수 중 자연재해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나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보호수 5그루, 노거수 7그루를 대상으로 5,8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죽은 가지 제거와 영양제 공급, 외과 수술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임실군 보호수는 느티나무 23그루, 버드나무 1그루, 은행나무 4그루 총 28그루 지정되어 있다.

노거수는 대략 170그루 정도로 나무의 수령이 오래된 담산목, 풍치목, 장지목 등의 나무를 관리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오래된 수목을 보호하고 마을을 상징하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